

01 교회소식

교회 개척 39주년 맞아

오는 7월 25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개척 39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을 갖는다.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예수님의 가상철언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알아본다.

03 기획특집

킨사사만민교회 랜선 은사집회

비대면 해외 선교의 일환으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강사로 콩고 민주공화국 ‘킨사사만민교회 랜선 은사집회’가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04 간증

하나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살아 있는 교회

질병 치료와 가족복음화, 사고에서 지킴 받고 물질 축복을 받는 등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한 김봉배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948호 2021년 7월 1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교회 개척 39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전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오는 7월 25일 개척 39주년을 맞는다.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개척예배를 드렸다. 당시 이재록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짐으로 1984년 12월, 200평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1991년 2월에는 등록교인 1만 명을 돌파했다.

1991년 7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가 형성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92 세계성령화 대성회 공동대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실무대회장 등 각종 교계 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했으며,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 지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였다.

1993년 8월에는 미국 180개 교회 연합으로 열린 ‘워싱

턴복음화대성회’, 9월에는 ‘LA복음화대성회’에서 이재록 목사가 주강사로 복음을 전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북미뿐 아니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써온 우리 교회는 2000년 7월,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계 선교 시대에 돌입했다.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미국, 에스토니아 등 많은 나라에서 해외 연합대성회를 개최해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 결과 회교, 힌두교, 가톨릭 신자들이 개종함은 물론 무수한 영혼이 치료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특히 2007년 7월, 교회 개척 25주년에 시작된 이스라엘 선교와 2009년 9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통해 이스라엘 기독교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 개척 초기부터 이스라엘 선교와 세계 선교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것이다.

지금도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이 제단과 함께하심을 보장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이받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GCN방송과 책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함으로 영혼 구원은 물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초기, 17명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건축하게 될 대성전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이로써 가장 함당한 때에 대성전을 건축함으로 전 세계 만민이 구원에 이르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뤄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친히 인도하시며,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이 참임을 입증하는 만민의 사역을 통해 마지막 때의 섭리를 크게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님의 가상칠언(1)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3:34~43)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운명 하시기까지 그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일곱 마디 말씀에 담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架上七言)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 구원의 길을 완성 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가상칠언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1, 2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1언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빌립보서 2장 6~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순종으로써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인류를 대신해 모든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로마 군병과 이스라엘 백성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마치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란, 단순히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일컫

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원수 마귀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오늘날에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주관해 빛 가운데 행하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 나이시니 그 능력을 힘입으면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대신해 용서를 빌며 사랑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간구 때문에 오늘날 무수한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지요. 또 우리가 애매히 핍박을 받을지라도 악으로 대항하거나 감정을 품지 말고 오직 선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마 5:44~45).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2. 제2언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강도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눅 23:33).

이때 한 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으나 다른 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는 강도를 꾸짖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요. 그러자 예

수님께서 그가 구원받아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상칠언 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는데, 먼저는 천국의 처소 '낙원'에 대해 알려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대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넓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의 낙원에 갔다 왔다고 했으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이 하나의 처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마 11:12 ; 고전 15:41). 사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닦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했느냐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영광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니 어느 곳이나 아름답고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지만 각 처소마다 그 행복과 영광이 다릅니다. 특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가장 영화로운 처소에서 하나님을 닦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한 강도가 있을 낙원은 천국에서 가장 번두리 지역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영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별로 거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강도가 낙원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이 강도는 다만 선한 양심을 좇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겨우 구원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듣고 지켜 행하고자 죄를 버린 것도, 누구를 전도한 것도 아니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상급 없는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은 강도가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낙원에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시지만 천국 전체를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통치하시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오늘’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혹은 어느 특정한 날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강도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그 순간부터는 그가 어느 곳에 있는지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날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3. 윗음부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 곧바로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했으며,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지요.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해도 모두가 원죄를 타고 난 죄인이며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범죄를 범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주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놓으셨지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선한 마음 가운데 창조주를 인정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에는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양심의 소리를 좇아 살아갑니다. 악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나름대로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자기 욕심을 좇아서 헛된 우상이나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나마 한 분이신 조물주를 인정하며 사람의 도리를 좇아 살아갑니다.

반면에 아무리 선하게 보인다고 해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양심이 악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밝히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을 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처럼 양심 심판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실 때까지 윗음부에 머물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전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영혼들도 윗음부에 머물고 있었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요. 이때 부자가 고통받고 있는 곳은 아랫음부이고 나사르가 안식하는 곳은 윗음부입니다. 아랫음부는 어둠의 영역으로 지옥의 일부이며, 윗음부는 천국과 마찬가지로 빛에 속한 영역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옥의 영들, 곧 윗음부의 영혼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했으니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야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 윗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랑의 간구를 하시고, 믿음을 내보인 강도에게는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 깨달아 날마다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 킨샤사만민교회 랜선 은사집회

하나님의 권능, 랜선 타고 민주콩고로!



강사 이복님 원장

지난 6월 27일 주일 오후 8시(현지 시각 오후 12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강사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랜선 은사집회’가 줌(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리 교회 본당과 킨샤사만민교회 성전 및 지성전을 연결해 생중계 됐으며, 강사 이복님 원장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단으로 나와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마징고 글로디 치코(26세) 심한 폐결핵과 치질 치료.



글로리아(19세) 말라리아로 인한 심한 두통과 눈 통증 치료.



사키나(71세) 중풍으로 인한 시력 저하와 다리 통증 치료.



에밀린(45세) 시력 회복으로 작은 글씨도 잘 보게 됨.



보투라 가브리엘(78세)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



킵룬다 데스카(32세) 치질과 탈장, 등 통증 치료.



폴린(70세) 무기력증, 오른쪽 손과 팔 통증 치료.



나탈리 푸투(26세) 눈 통증 사라지고 시력 회복.



무텔라(40세) 관절염 치료돼 잘 걷게 됨.



소나 마벨린(70세) 위장병과 다리 통증 치료.

1998년 어느 날, 아내는 어떤 분들에게 부침개와 함께 그 접시 위에 놓인 '만민뉴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도님들이 부침개를 정성껏 부쳐서 '만민뉴스'와 함께 전하며 전도를 하셨던 것이지요.

'만민뉴스'를 읽어본 아내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간증이 100% 믿어졌고,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만민중앙교회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로 금요일아침에 아내를 바라다주게 되었지요.

그때 많은 성도가 교회를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가 매우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날 아내는 만민의 양 떼가 되었고, 저는 이틀 뒤 주일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등 설교 테이프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니 신앙생활이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당회장님을 붙좃는지 의아했습니다. 당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요. 그래서 당회장님을 뵈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열심히 찾아 다녔습니다.

성도님들은 당회장님 앞에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 계신 역사를 전하시며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 주고자 애쓰셨지요. 성도님들을 대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은 늘 처음과 끝이 똑같으신, 한결같은 분이었고 자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으셨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후 응답과 축복을 체험한 성도님들은 당회장님께 다시 나가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이러한 선한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니 당회장님을 뵈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 당회장님을 자연스럽게 붙좃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 가운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끓는 기름에 얼굴 화상을 입은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사고 6일 만에 얼굴과 머리에 딱지가 입히고 약 3주째에는 흉터 없이 깨끗이 치료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니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새겨졌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뵈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봉배 집사 (56세, 3대대 20교구)

이뿐 아니라 저희 가정에도 질병이 치료되고 사고에서 지킴 받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큰딸은 감기 걸릴 때마다 양쪽 귀에서 진물이 나서 고

통받았는데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뒤 깨끗이 치료되었고, 다리가 당기는 통증으로 고통받던 어머니께서는 무안단물(출 15:25)을 뿌린 뒤 깨끗이 치료돼 이 일을 통해 아버지까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지요.

또한 저는 근무 중 큰 사고에서 지킴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하 차도 공사 시, 콘크리트 박스를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발을 잘못 디터 4~5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순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 양팔이 'ㄱ'자로 되어 있는 빔에 한 팔씩 걸쳐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만약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몸의 어딘가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제 양팔이 벌려져 빔에 걸릴 수 있었는지 신기했고,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교회 왔을 당시, 저희 가족은 전세금 1,500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일꾼으로 충성하던 저는 “남장년 30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경매를 통해 철산동에 있는 단독 주택을 응답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빌려주신 조금의 자금으로 이 집을 응답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지요. 저는 경매지 위에 손을 얹고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를 기도 받은 뒤 단독으로 낙찰돼 집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집이 재개발이 돼 2020년에는 전세금보다 약 30배 오른 가격으로 팔리게 되니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빚들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할 집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형통하게 구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뵈었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